

모두를 위한 아시아 환경교육의 사례와 성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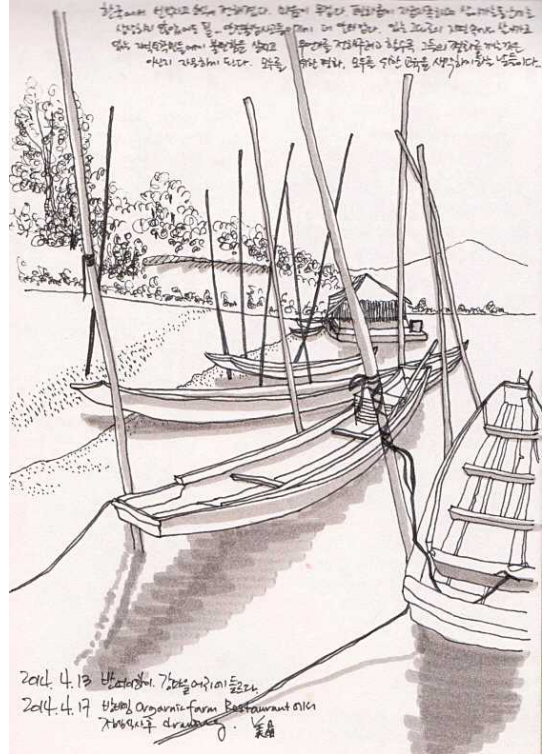
- 라오스, 캄보디아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장미정

(사)환경교육센터 센터장

seemjjang@gmail.com

속절없이 세월호 1주기를 맞았다. 깊은 슬픔과 함께 물려든 부끄러움, 반성의 시간이 흘렀지만,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전히 속수무책이다. 지난 해 세월호 사고가 있는 날, 나는 라오스 출장 중이었다. 지나치던 여행객에게 선박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고 곧 구출되었는지 생각했다. 시간이 갈수록 갈팡질팡하는 뉴스만 계속 전해졌다. 복잡한 생각이 들었다. 당시 주민요구조사차 방문했던 강마을 어귀의 전경이 겹쳐졌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하려는 것이 오히려 이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그네들의 평화를 깨는 것은 아닌지, 모두를 위한 평화, 모두를 위한 교육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들었다. 생존의 문제가 곧 빈곤의 문제는 아니다.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뛰어들지만 오히려 그들은 ‘우리는 행복한데 너도 행복하니?’라고 묻는다. ‘평화로운 라오스의 강마을 어귀의 풍경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아시아에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무언가를 하는 일은 그들에게 무엇을 건네는 작업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무언가를 배우는 과정이 아닐까 싶다. 이것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세월호 사고를 바라보며 우리사회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논의가 일어났다. 누군가는 비판적 사고 없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그대로 듣기만 하도록 한 교육이 문제라고도 한다. 일면 이 해는 되지만, 사투 속에서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했을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 속상하다. 오히려 이런 사고가 벌어졌음에도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보고하지 못하거나, 책임을 회피해버리는 무책임한 책임자들을 길러내고, 책임을 약자들에게 전가해도 별 문제가 없는 사회구조를 만들어낸 교육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 교육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의 하나는 책임 있는 시민을 길러내는 일이 아닐까?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또 다시 겪지 않도록 반성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해 교육이 좀 더 나은 사회를 꿈꿀 수 있는 세대들과 배려와 나눔, 공평과 정의를 통해 책임 있는 생태시민이 되도록 역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가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을 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1. 아시아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

최근 국내 NGO들의 국제협력 사업이나 활동 참여가 늘어나고 있고, 국제개발 NGO들이 많아졌고, 기존 환경NGO에서도 녹색ODA 등 국제개발협력에 동참하는 분위기이다. 협력의 방식은 다양하지만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체들이 ODA 사업에 참여한다. 양적, 질적인 면에서의 평가는 엇갈리지만, 더 나은 협력을 위한 환경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 ODA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전략을 구상해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전 세계의 소득은 22%가 증가했지만, 지역적 불균형은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조현아, 2009). 한국은 오랫동안 원조를 받아온 국가였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로 성장하여 ODA 공여국이 되었다.²⁶⁾ 한편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짐에 따라 UN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도 환경적 지속가능성(Ensur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를 7번째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ODA에서도 환경 분야 원조나 환경을 주목적으로 지원한 사업이 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 및 기후변화 ODA, 녹색 ODA(이하 녹색ODA)는 2006년 1.7%에서 2010년 14.1%로 증가하였다(강민경, 2013).²⁷⁾ 그런데 한국의 녹색 ODA는 지금까지는 수자원 개발이나 상수도 시설 건립, 태양광 발전소 건립 사업 등 생활환경 개선이나 기술적인 면에 한정되어 있다.

한편 교육ODA의 경우, 기초교육시설 제공과 기술(직업) 교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개도국이 당면한 문제가 빈곤이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업과 관련된 기술, 직업 교육이 당장 절실한 상황이고 지역민의 요구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존의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이유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빈곤은 식량, 물, 학교, 병원 등의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조차 배제하게 된다. 이태주(2015)는 국제사회에서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에 당연히 강요하고 있는 국가 전략과 발전 목표는 오히려 빈곤과 질병, 부패의 덫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새로운 부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는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에게도 해당되며, 첨단 정보화 사회와 과학기술의 발전, 다양한 문화 자산의 보존과 활용, 국민적 자부심 고취, 민주화와 평화 정착이라는 열망은 어떤 사회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열망이고 비전이라고 말한다. 빈곤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점령군이 되어 들어갈 것이 아니라 빈곤 뒤에 있는 그들의 다양하고 건강한 열망을 공감하고 배려하는 과정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영역을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까? 김갑성(2012)에 따르면,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적 낙후, 교육발전을 통한 국가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들 대상 국가들이 발표한 교육발전 방향에는 ICT 프로그램 개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방분권화 교육(지역특성에 따른 교육체계 수립), 모두를 위한 교육(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증가 해소), 교사 연수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그는 동남아시아 국가와의 교육협력의 추진 전략으로 경제 교육적 차이에 따른 그룹핑과 지원 협력 대상과 방안 결정, 현지 방문,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과 정책 개발과 보급, 연수(교사, 전문가 양성)와 활용성 점검, 정보공유와 더 나은 협력방향 모색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꼽고 있다. 교육적 차원의 국제개발협력에서 참고해야할 전

26) 우리나라의 ODA 규모는 13억 \$(2011년 기준)로 규모순위 17위이다. 그러나 우리와 경제규모가 유사한 나라인 호주, 네덜란드, 캐나다, 스페인 등에 비해서는 저조한 수준이며, 경제력 대비 국제 사회공헌에 대한 비교(ODA/GNI)는 0.12%(UN 권고기준은 0.7%)로 개발원조위원회(DAC)가입국 중 하위권이다. 이에 대해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2008년 방한시 “현재 한국의 기여 수준은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걸맞지 않다.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부끄럽다”라고 한 바 있다.

27) 환경(녹색) ODA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업이거나, 전 지구적인 자연재해 및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역량제고에 기여하는 사업, 혹은 환경, 산림, 에너지, 농업, 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사업들을 통칭하여 이른다.(강민경, 2013, 국제개발협력과 환경, KOICA)

략이다.

2. 사례와 성찰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아시아 개발도상국과의 국제협력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복잡한 현실을 이해하는 일, 원조보다는 배우고 함께 개발해가는 일, 교육이나 실업, 복지, 환경 문제 등 개별적 문제 접근이 아니라 전체를 고려하는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대표적인 환경교육단체인 (사)환경교육센터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의미와 방향, 접근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먼저 2000년대 활동들을 간략히 살펴보고, 아시아지속가능발전교육운동의 체계화를 시작한 2013년 이후, 특히 캄보디아, 라오스에서의 실험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향후 교육의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특히 Post-2015년의 시점에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운동’을 기치로 아시아 교육외계층을 위한 교육활동을 새로운 교육의제로 삼은만큼, 이번 포럼을 통해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의 논의와 실천을 풍부하게 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가. (사)환경교육센터의 초기 국제협력활동

(사)환경교육센터는 1993년 환경운동연합의 교육팀에서 출발, 2000년 전문환경교육 운동을 표방하며 설립된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교육을 대표해온 전문단체 중의 하나이다. 정관상 “환경교육의 대중화와 체계화를 추구하며,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한 일반 대중의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형성, 실천적 참여를 이끌어 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생명·평화·참여·나눔을 핵심가치로 삼으면서 환경교육의 공평한 접근을 실천하고자 노력해왔다.

(사)환경교육센터는 설립초기부터 국제환경교육 영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활동해왔다. 그간의 활동유형을 분석해보면, 1) 국제세미나나 컨퍼런스 등의 컨벤션 행사 개최나 참가, 2) 교류나 견학 목적의 단기방문연수, 3) 워크캠프나 공정여행 등, 4) 공동연구나 개발을 위한 회의 등이 있다. 초기의 접근은 대체로 일회성 행사나 교류, 단기연수 등이 주를 이루었지만, 그 가운데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

먼저 아시아지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히면서 진행해온 **여행과 봉사 프로그램을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자. 청소년과 대학생 참여가 주축이 된 교육활동으로 수행된 “중국여름 워크캠프(2003~2007년)”와 “초원보전생태투어(2006~2008년)”, “지구촌공정여행, 지구별 여행학교(2012~2014년)”는 몇 가지 의미를 갖는다. 먼저 긍정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는 교육 참가자들의 성장과 함께 한 프로그램의 변화과정이다. 초창기 어린이 청소년 교육활동을 주력해 온 만큼, 어린이 ‘푸름이’들은 해가 가면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지속가능한 지구여행자로 성장했다. 둘째, 초기 감수성 중심 생태교육에서, 점차 주제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이후에는 국제이해, 문화다양성 등의 영역으로의 주제가 확장되었다. 이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이 주요흐름으로 나타난 점, 정보화시대의 빠른 정보교류에 따른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 점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된다. 셋째, 활동범주의 확장이다. 기행이나 캠프 등은 체험학습 중심이었지만 국제이해나 봉사활동을 접목한 워크캠프나 봉사캠프, 공정여행 등의 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진화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몇 가지 과제도 남겼다. 우선 재원확보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 현지 정치사회적 상황이 변화했을 때, 현지 파트너단체나 Key Person의 여건이나 상황이 변화했을 때, 프로그램의 지속성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둘째, 짧게는 일주일 길어도 한 달간 진행되는 단기 프로그램인 만큼 사전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공동체나 현지인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접하고, 충분히 소통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넘쳐나는 해외봉사단,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들이 있다. 이런 활동이 현지인들에게는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공동체에 끼어드

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착한 여행인지 아닌지는 여행이 끝나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여행자, 혹은 봉사단들은 자신들이 다녀간 자리를 생각하는 책임여행을 해야 하는 부담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아시아네트워크를 통한 교류 활동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환경에 처해있는 만큼,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지 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교류의 힘이 있다. 환경교육센터는 그간의 파트너들과 지구의 벗의 네트워크 조직을 중심으로, 2007년 9개국에 참여하는 아시아시민환경교육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교류활동을 해왔다. 각국의 환경교육현황과 사례를 공유하는 아시아시민환경교육워크숍을 시작으로 기후변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의 공동관심사에 대한 교류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민간주도의 네트워크가 처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분명했다. 안정적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차기 모임은 누군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특정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주체단체의 성격에 따라 모임의 성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고 무엇보다 차기모임 일정이 불투명했다. 물론 네트워크를 계기로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거나 공동사업의 파트너로 만날 수 있게 된 수확은 있었지만, 몇몇 적극적 파트너들을 제외하고는 지속가능한 교류가 요원했다. 바꿔 말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한 파트너 국가들과의 교류에는 한계가 있었다.

[표 1] (사)환경교육센터의 국제이해교육과 국제 협력사업 목록(환경교육센터, 2014 재구성)

연도	사업명	유형	주요 내용
2001	사회 환경교육 국제 세미나	세미나	“사회 환경교육의 현황과 전망(Prospects and Status on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 7개국 참가
2003	중국여름 워크캠프 (China Summer Workcamp)	워크캠프	제4기 중국워크캠프의 환경교육 한국팀 코디 / 사회환경교육의 국제교류 및 지원 / 국내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국외 적용 / 타문화권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및 한국의 문화 등 홍보
2004	중국여름 워크캠프 (China Summer Workcamp)	워크캠프	타문화권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및 한국의 문화 등 홍보
2005	일본 지속가능발전교육추진협의회 교류	교류	일본 지속가능발전교육추진협의회 교류
	환경해설가 공동인증제도 도입과 구축을 위한 일본선진연수	탐방,연수	(사)일본환경교육포럼, 자연체험활동추진협의회 등 관련단체, 센터 방문 /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주최 / 2005.6.22~28(6박7일)
	2005 일본 아이치 박람회-지구 시민촌 한-중-일 환경전문관 참가	탐방	한국(환경운동연합)-중국(녹색북경)-일본(동아시아 환경정보발전소) 3국 환경단체가 참가하여 지구 시민촌 내에서 환경전문관 부스 운영(9월)
	홍콩 습지교육센터 방문연수	탐방,연수	홍콩 습지교육센터 방문연수
	중국여름 워크캠프 (China Summer Workcamp)	워크캠프	타문화권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및 한국의 문화 등 홍보 - 중국 중학생(1,2,3학년) 3반 총56명 교육
	2005 생태도시 해외탐방 - 호주 Brisbane, Melbourne, Sydney	탐방	생태도시운동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와 우리 실정에 맞게 접목시키는 운동 전략 모색
	그린피스 오픈보트 행사 “고래야 돌아와” 참가	캠페인	그린피스 오픈보트 행사 “고래야 돌아와” 참가
2006	중국여름 워크캠프 (China Summer Workcamp)	워크캠프	타문화권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및 한국의 문화 등 홍보
	필리핀 아트에듀케이션 활동가 교류	교류	필리핀 아트에듀케이션 활동가 교류
	인도 태양에너지시설 활동가 탐방	탐방	인도 태양에너지시설 활동가 탐방

2007	중국여름 워크캠프 (China Summer Workcamp)	워크캠프	타문화권 학생들에게 환경교육 및 한국의 문화 등 홍보
	아시아시민환경교육 국제워크숍을 위한 사전워크숍	워크숍 네트워크	아시아 네트워크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로코아의 피데스 초청강연 / 국제워크숍 준비
	아시아시민환경교육 국제워크숍 “만남과 연대” - 아시아시민환경교육네트워크구축	워크숍 네트워크	아시아지역의 환경교육단체 활동가들이 모여 각 국가 및 단체의 현황과 내용에 관해서 교류
	환경학습도시 니시노미야시의 성과와 과제	탐방 연구	지역에 기반 한 환경교육 지역사례 및 모델 연구
	내몽고 초원보전 생태투어 - 초원에 살어리랏다	워크캠프	내몽고 초원보전 생태투어 프로그램을 통한 사막화 및 유목문화 이해 증진에 기여
2008	아시아환경교육네트워크 활동교류 연수, 말레이시아 탐방	탐방,교류 네트워크	환경재단 그린아시아 공모사업에 “말레이시아 환경교육에 매혹되다”로 제출 선정, 운하문제와 결부되어 말레이시아의 하천 환경교육프로그램, 환경교육진흥법과 관련되어 말레이시아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하여 탐방
2009	말레이시아MNS환경교육교사 및 활동가 워크숍	탐방,연수	말레이시아 자연학교(KPA, School Nature Club) 교사 워크숍 / 각국 환경교육 사례 공유 등
	제3회 청소년습지연구 공모전 해외습지연수	탐방,연수	중국 샤먼 악어습 견학, 홍콩 마이포 습지, 홍콩습지공원 탐방 등
	Training of Asian Grassroots Trainers in Climate Change 컨퍼런스 참가	컨퍼런스	Training of Asian Grassroots Trainers in Climate Change 컨퍼런스 참가
2010	동절기 필리핀 아시아네트워크회의참가	연구,회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사례조사 설계
	제4회 청소년습지연구 공모전 해외습지연수	탐방,연수	일본 하카타만 탐방 및 철새 탐조, 와지로 갯벌을 지키는 시민모임 방문, 기타큐슈 인터프리테이션 연구회 미팅, 이무타습지 견학, 가고시마 녹나무 자연관 견학, 킨코만 습지 저어새 탐조, 이즈미시 두루미 탐조, 미나마타병 역사고증관 견학 등
	아시아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후변화교육 네트워크 회의	연구,회의 네트워크	아시아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후변화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회의
	아시아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후변화교육 네트워크 공동연구 회의 참가	연구,회의 네트워크	각국별 기후변화교육 현황 조사 설계
	CLIMATE Asia Pacific 네트워크(Climate Change Learning Initiative Mobilizing Action for Transforming Environments in Asia Pacific) : 아태 지역 환경 개선 행동 촉구를 위한 기후 변화 교육 네트워크	컨퍼런스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네트워크를 구축,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교육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정책과 프로그램, 개인과 정부, 실제적 구조와 능력, 인적자원, 기술 및 도구 등)을 조사 /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후변화와 환경교육 컨퍼런스
2011	환경교육활동가 일본 기타큐슈 연수	탐방,연수	기타큐슈 시청, 물환경 박물관 견학, 기타큐슈 인터프리테이션 연구회 방문, 재활용 에코센터 견학 등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기후변화교육 현황조사 공동연구와 회의참가	연구,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 NGO의 환경교육 현황 파악, 아시아 지역 NGO 연대 및 정보공유
2012	지구촌 공정여행, 라오스편 진행	공정여행	청소년과 대학생 멘토들이 참여하는 지구촌 공정여행, 라오스편 진행 /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공동 주최 / 매콩강 인근 댐건설현장, 고도 탐방, 싸이나부리 필드윅, 홈스테이 등
2013	MEP(Motehr Earth Progam) 개발	연구,개발	아시아환경운동과 환경운동가 전문역량강화라는 화두에 공감하는 (사)환경교육센터, 에코피스아시아,

			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 행동연구소가 공동으로 사업발굴, 비전만들기 네트워크 운영 정기 모임을 통해 사업공감대 형성: 지역개발-네트워크-역량강화를 세 축으로 하는 MEP 프로그램 제안 사업실행과정에서 KCOC민간단체사업발굴지원사업(KOICA 지원)에 참여하게 됨.
2013	아시아환경교육 사업발굴 캄보디아 현지조사	연구, 현지조사	MEP의 일환으로서 캄보디아 현지조사활동 아시아 지역개발사업의 가능성과 한계, 발전적 도전과제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됨. 현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아시아환경교육콘텐츠개발과 기반지원 사업이라는 사업방향수립과 '아시아환경교육공동체 형성과 실천'이라는 주제의 EPLC지원사업을 발굴함.
2014	아시아지속가능발전교육 연속포럼 1~4차	포럼	아시아지속가능발전교육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한 단계적 학습포럼 - 1차 지금 아시아에 필요한 ESD는 무엇인가? - 2차 아시아 ESD, 어디쯤에 있나? - 3차 아시아 ESD의 현재를 본다. - 4차 우리는 아시아ESD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2014	지구촌 공정여행, 필리핀 편 진행 지구별여행학교 2기	공정여행	청소년들의 지구촌 공정여행, 필리핀 편 진행 / 환경주제 커뮤니티 탐방, 역사문화생태탐방, 국제이해프로그램과 현지청소년 교류, 봉사활동
2014	아시아의 초록바람 - 라오스환경교재개발	연구, 콘텐츠개발, 교육, 현지조사	라오스 현지조사 적정기술ODA 교육자문 현지인 공동 콘텐츠 개발 현지 소수민족 교육지원활동 재능기부 그림전시회 모금과 책개발보급
2015	지구촌 공정여행, 라오스편 진행 지구별여행학교 3기	공정여행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참여한 지구촌 공정여행, 라오스편 진행 / 마을탐방, 교육봉사, 역사문화탐방 등

출처: <환경교육센터, 2014, 한국의 환경교육운동사, 이담복스> 재구성

나. 2013년 "MEP(Mother Earth Program)"와 캄보디아 현지조사

활동 10년차를 넘어서면서 (사)환경교육센터는 이후 활동방향에서 연구운동과 아시아 환경교육운동을 주요 의제로 꼽았다. 2012년에는 그간의 활동기록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으면서, 특히 국제협력분야의 활동의 경우 필요에 의한 단기적 활동(연수, 탐방, 캠프 등)이나 수동적인 대응에 머물러 있었던 점을 반성하면서, 아시아의 각국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의제와 민간단체의 역할을 찾아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 환경운동을 준비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협력단체들과의 공동학습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KOICA의 민간단체 사업발굴 현지조사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과정과 학습

- **공동학습:** 아시아협력은 각각의 장점을 가진 여러 주체들의 연대를 통해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몇 개의 단체들이 만났다. 아시아 환경운동에 관심있는 에코피스아시아(지역개발, 적정기술), 환경운동연합(네트워크), 기후변화행동연구소(담론, 적정기술), 환경교육센터(교육, 양성) 등이다.
- **MEP 구상:** 이들은 정기적인 학습과 논의를 통해 아시아 환경공동체 형성이라는 큰 그림으로 "MEP(Mother Earth Program)"을 기획하고, '담론형성-교육-지역개발'의 3개의 축으로 활동계

획을 구상했다. 이러한 구상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점검하고자 각 단체들은 자신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사업지를 선택해서 KOICA의 민간환경단체 발굴지원 현지조사 사업에 지원 신청하였다. 애초 MEP의 교육적 구상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었지만, KOICA의 사업특성상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활동을 구상하게 되었다. (사)환경교육센터가 선택한 곳은 캄보디아였는데,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믿을만한 현지파트너가 있는 곳을 택했다. 캄보디아 씨엠립 지역의 한 마을을 선택하고 “Mother Earth School in Cambodia(MESC, 가칭)”의 설립 및 프로그램 운영 가능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MESC를 통해 사회적, 환경적 약자인 여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심, 놀이, 배움의 공간이 되는 마을의 주민센터 운영, 재활용 등을 중심으로 한 생계적 대안 제시, 지자체-NGO-주민의 환경활동과 소통의 거점을 만드는 일을 목표로, 주역 주민교육, 지역 리더 양성에 힘쓰겠다는 계획이었다.

- **지역조사:** 지역조사는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확인하고, 이해당사자와 지역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1) 현지 환경, 보건, 위생 현황 조사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인식 조사, 2) 현지 교육 환경과 주민들의 교육 욕구 조사, 3) 지역 경제 구조 및 주민들의 경제활동 욕구 조사, 4) 교육활동 거점으로서의 에코센터 설립 가능성과 타당성 조사로 수행되었다.(환경교육센터, 2013).²⁸⁾ 먼저 현지 파트너로부터 사업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추천받았고, 사업지 변경 가능성에 대비하여 두 개의 마을의 현장탐방, 주민설문과 개별면담, 그룹면담, 이해당사자들과의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민들을 만났고, 수질과 쓰레기, 에너지문제를 중심으로 간단한 측정조사도 진행하였다.
- **조사결과 요약:** 현지 수요와 상황파악 조사결과를 교육, 경제, 환경적 측면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교육 상황 :** 두 마을 모두 문해율과 취학률이 낮으며, 이것이 저소득으로 이어진다고 스스로 인지하고 있었다. 극빈층에 속하는 무허가지역인 A마을의 경우 직업교육에 대한 욕구가 높고, B마을의 경우 대안교육이나 교육기반시설 등에 대한 욕구가 더 큼. A마을의 경우 영어, 예술교육 등 NGO 교육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B마을의 경우 초등학교가 있어 보다 나은 형편이었지만, 교재나 교육과정 등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 교육지원이 요구되었다. 성인대상 기술교육 요구가 많았는데, 여성들은 옷 만들기, 미용기술, 관광 상품 만들기 등, 남성들은 전기, 기계 기술 교육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실제로 생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교육이 몇몇 NGO들이 들어와 시도한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 **경제 상황 :** 두 마을 모두 소득수준이 평균 한 가정당 100달러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소득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환경문제나 위생보건 등의 다른 파생 문제들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직업군이 한정되어 있으며 재활용품 수거나 일용직이 대부분이었고, 무직자의 비율이 높고, 낮은 소득 때문에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A마을의 경우 국가의 땅 또는 개인의 사유지에 불법으로 거주를 하고 있는 상태로 주거상황이 열악하고 농사지를 땅이 없고 지역애정도가 없어, 기반지원보다는 일시적 지원을 원하는 경향도 있었다. B마을의 경우 농업기반 경제활동이 기본이지만 수입이 적어 새로 들어오는 공장에 일용직으로 취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역시 평균수입이 매우 낮아 대안적 경제에 대한 욕구가 컸다.
 - **환경 상황 :** 주민들이 느끼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수질오염과 이로 인한 위생문제였다. A마을의 경우 식수나 생활용수로 쓰이는 우물물은 식수로 부적합한 수준이었다. 그나마도 사후관리가 잘

28) **이해당사자 분석 :** ① 단체, 관공서, 학교 방문 및 회의; 현지 사업 관련 관공서현지에서 활동하는 로컬, 국제, 한국 단체들을 방문하여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② 지역 주민 기초 설문조사 및 심층 면담; 현지 지역 주민들 중 표본 가구를 선정하여 기초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진행. 총 86개 가구의 기초설문조사, 15개 가구의 심층 설문 조사 완료 / **지역 환경 조사, 마을 환경 지도 만들기 :** ① 마을 환경 분석; 지역의 수질, 토양, 환경 취약 지점, 식수원, 화장실 위치 등을 측정하고 파악; ② 수집한 환경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의 환경 지도를 제작. (환경교육센터, 2013)

안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우물들이 부지기수였다. 쓰레기문제와 그로인한 악취문제도 심각했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서 각 가정당 한달에 2달러가량을 지불하면 수거차량이 마을로 들어오나 지불할 여력이 되지 않아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소각하고 있었다. 전기에너지 문제도 나타났다. 전기 요금이 비싸 전기제품의 사용이 제한적이며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다. B의 경우 학교에서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였지만 2KW로 매우 적은 전력량이어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적정기술 등 장기적 차원에서 재생에너지사업 등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B의 경우에는 벌목 문제도 있었다. 특별한 생계가 없는 경우 벌목을 통해 생활하기 때문에 불법벌목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면서 생태계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

현지조사연구 참여자들은 지역조사보고서에서 이후 활동방향으로 크게 1) 지역기반 환경교육과정 개발, 교육 교보재, 교사교육, 학부모교육 제공, 2) 주민조직과 역량강화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3) 대안적 생계와 환경개선, 자립적 마을재생, 4) 환경개선활동과 환경테마의 자립적 사회적 경제체제 구축으로 정리했다. 그러나 센터 스스로가 이런 활동에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잘 할 수 있는 역량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은 한 단계 심화되었다.

다. 2014년 “아시아지속가능발전교육 연속포럼”(1~4차)

(사)환경교육센터의 2013년 캄보디아 현지조사 경험은 아시아 환경교육운동의 접근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다. 스스로 “우리가 아시아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답을 찾기 위해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 교육가들과 함께 학습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2014년 상반기, “아시아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속포럼”을 4차례 진행하였다.²⁹⁾ 이 포럼에는 관심 있는 환경단체와 국제개발협력단체, 교육단체, 교육연구자들이 참여했고, 국내NGO중심의 아시아협력활동사례와 경험을 나누었고(예. 전주환경연합, 공감만세(사회적기업), YWCA, 서울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등의 국제개발협력 사례), 아시아 각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사례(예. 필리핀의 까부야오 프로젝트 등)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에서 어떤 차원의 교육활동이 필요한지,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라. 2014년 “아시아의 초록바람(Wind & Hope)” : 라오스 녹색ODA 사업과 연계한 교육적 실험

그간의 학습과 논의의 결과, 센터는 첫 번째로 아시아지속가능발전교육 실천의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동체 속으로 뛰어들거나 한번 해보는 식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가능성을 점검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의 교집합을 좁혀가기로 한다. 두 번째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은 여러 분야 전문가들의 협업을 통한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보다 공감하게 되었다. 먼저 현지사정을 잘 아는 파트너들과 협력을 통한 접근을 통해 지역공동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면서 교육적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기로 한다. 그 중 한 가지 방법은 현지에서 녹색ODA를 하고 있는 곳과 교육적 협력을 하는 것이다. 마침 적정기술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앞선 공동의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을 제공했던)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교육자문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전에도

29) <아시아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속포럼 주제>
 제 1차 지금 아시아에 필요한 ESD는 무엇인가?
 제 2차 아시아 ESD, 어디쯤에 있나?
 제 3차 아시아 ESD의 현재를 본다!
 제 4차 우리는 아시아 ESD의 차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라오스 공정여행을 통해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고, 센터에서도 청소년, 청년들과 첫 번째 공정여행을 진행했던 국가였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지여건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곳이었어서, 장기적인 교육협력 후보지로 판단하고 교육자문겸 현지조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현지교육지원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과정과 학습

- 현지조사:** 당초 출장목적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라오스 재생가능에너지 지원사업의 교육전문가로 참여하면서, 현지 교육활동 체계를 점검하고 연구진/교수진과 교육과정 및 추진일정 논의하는 일이었다. 그 과정에서 환경교육센터의 아시아 환경교육 콘텐츠 개발 사업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었다(문맹률, 교육수준, 교재 난이도, 교재보급 수준과 체계 점검, 가능성 점검, 현지인들의 요구조사 등). 그간 한국이 라오스에 지원한 ODA는 주로 직업훈련원과 초등학교 설립에 라오스는 재생가능에너지가 보급될 산간마을까지는 거리가 있어, 대신 라오스 소수민족이 사는 마을과 인근마을교육을 해오고 있는 유스센터, 라오스에서 찾아보기 힘든 몇 안 되는 서점, 라오스대학 등을 방문했다. 최빈국에 속하는 라오스의 경우 전반적인 기반시설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에너지 보급의 문제로 무분별한 개발 없이 최소한의 전기를 취약층에게 제공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라오스 현지조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책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 그리고 초등 필수교과목이(국어, 수학, 우리를 둘러싼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말하고, 셈하고, 그 밖의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지혜를 배우는 것을 필수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말하기, 셈하기를 제외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 교과목이 매우 중요하며, 어쩌면 우리가 그간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통합적 접근을 이야기하면서 생각해오던 이상적인 교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책은 어디에서나(도시에서나 농촌에서나) 귀했고, 현지 유스센터 리더는 가장 필요한 것이 좋은 콘텐츠의 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신이 일하고 있는 유스센터를 통해 한 NGO에 의해 제작 보급된 한 권의 책은 몇 해를 들고 돌며 마을에서 읽힌다고 했다. 교육적으로 보자면, 문맹률이 아직까지도 높고 기초교육기회가 매우 적은 라오스의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³⁰⁾, 장기적으로는 기초적인 교육의 질과 양을 높여줄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기반구축이겠지만, 단기적으로 혹은 우선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사회나 문화,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일이 필요해보였다. 관련해서 책발행과 보급활동을 하고 있는 빅브라더마우스의 활동이 인상적이었다. 현지 전통과 속담, 종족 등의 문화이해 주제들의 소책자들이 발행되고 있었는데 최근에서 여성보건관련 소책자도 추가되었다. 여행자들의 기부를 통해 보급되고 있었다.

- 현지인 공동 콘텐츠 & 교재 개발:** 센터는 그간 대상별 주제별 환경교육 콘텐츠와 교재개발 경험이 적지 않다. 그러나 현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재개발을 위해서 현지인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필요했다. 라오스 현지전문가와 센터 연구진들이 개발한 교재 초안을 가지고, 라오스 국립대 재생에너지학과 교수와 대학원생들, 전 산림청장, 지역아동센터 교사 등의 지역전문가들의 도움으로 현지 맞춤형 교재로 수정해갔다. 특히 삽화의 경우는 라오스예술인모임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주었다.

당초 재생에너지를 시골마을에 보급하면서 사람들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해를 돕기 위한 교재 개발을 목표로 했지만, 에너지 이야기를 보다 넓은 차원 범주에서 ‘우리 곁의 환경’과 접목시켜

30) 라오스의 문해율은 68.7%(25세 이상, 2001년 기준)으로 보고되고 있고, 초등학교 진학률은 84%(2004년 기준), 중등학교 진학률은 37%(2004년 기준), 고등학교 진학률은 6%(2004년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다(조현아, 2009). 1990년대(진학율 58%)에 비교하면 많은 진전이 있다고 하나, 현장에서 느껴지는 기초교육에 대한 체감률은 더 낮은 수준이다.

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문맹률이 높고, 기초교육수준이 낮은 상태에서 에너지의 개념도 생소한 사람들에게 댐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이 난감한 일이기도 했다. 교재의 주요 대상은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이 들어갈 중학생과 성인(인근 주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에너지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환경동화를 통해 이해를 돕기로 했다. 스토리텔링의 현지 전문가들(라오스 국립대, 지역아동센터 교사)과 상의하면서 현지 실정에 맞게 각색하고 현지 예술도입 작가들에게 현지상황에 맞는 그림을 부탁했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이후 심화되는 학습활동에서 과학적 실험이나 체험학습을 추가하였다.

에너지 주제를 다루면서 한 가지 쟁점이 된 것은 소수민족마을에서는 쓰고 있지도 않은 석유, 천연가스, 원자력에너지를 다룰 것인가의 문제였다. 연구자들의 고민에 현지 교사는 어차피 라오스도 도시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쓰고 있지 않더라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편으로 개발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생물학적 성장과 학습수준, 문화적 접근 수준의 차이가 커서, 한국적 상황에서 보자면 경우에 따라서는 유아나 초등수준의 콘텐츠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의 이해수준에 맞게 기술해야 했던 점이다(예컨대, 온도를 측정하려면 온도계 사용법을 알려줘야 하는 상황). 한편으로 실제 교육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에서는 라오스어를 하지 못하는 소수민족마을 어린이들의 경우 3중 통역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 언어소통이 어려운 곳에서 교육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지교사는 주입식 교육방식에 익숙해 있었다. 연구진들은 교육콘텐츠 개발과 함께 지역리더들의 교육역량강화가 병행된다면 훨씬 더 좋은 교육기회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모으게 되었다.

- **시민참여와 모금:** 이렇게 개발된 콘텐츠를 제작하고 보급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그보다도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의 필요성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참여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아시아의 초록바람(Wind & Hope)"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것은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소재로 지속가능한 환경과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환경교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교육봉사활동 프로젝트이자, 더불어 사는 지구마을 아시아 촌에 희망을 전하는 프로젝트이기도 했다. 첫번째 활동을 아시아 어린이교육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일상예술가들의 재능기부 그룹전시회로 진행했다. "그러서 행복하고, 행복해서 나누고 싶다는 사람들" 아마추어 그림동호회 회원 20여명이 작품기부에 참여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전시회를 통해 기부구매에 참여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아시아의 초록바람" 주제를 담은 작품 전시회에 22작품이 출품되고, 그림과 엽서 등의 판매수입 전액(3,412,630원)은 라오스 산촌마을의 소수민족어린이들을 위한 교재(1,000부)의 인쇄제작비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 **교재보급:** 제작된 교재는 주요하게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의 활동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시설(태양광)을 설치한 소수민족 중학교에 보급되며, 교재개발에 참여했던 라오스대학원생들이 교육한 지역교사들에 의해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중 일부는 지난 2월 공정여행을 떠났던 '제 3기 지구별여행학교' 참가자들에 의해 라오스 소수민족 마을 아이들에게 전해지기도 했다. 또한 교재가 주요하게 보급될 학교가 있는 시(지자체)의 에너지광산국에 먼저 전해졌는데 공무원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고 고무적이다.

책이 귀하고 콘텐츠가 빈약한 나라에서 '안녕 에너지'란 제목을 내건 교재는 단순히 한편의 책의 의미를 넘어설 수 있다. 대안적인 삶을 위한 적정기술이 제공되는 곳의 사람들에게는 자기 주변의 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도록 돕는 매개가 되어주었고, 또 어떤 아이들에게는 그동안 상상해보지 못한 또 다른 미래를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가 되었을지 모른다. 또한 교재를 만들고 보급하는 과정에 서로 다른 아시아촌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참여하고 나눌 수 있는 매개가

되어 주었다.

마. 시사점과 의미

국제개발협력에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센터는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하려는 이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종합적으로 다시 고민해보기로 했다.

캄보디아 현지조사의 경우, 지원이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곳을 선택했었지만, 그러다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직접적 지원은 대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항상 옳은 방식인가?’하는 의문도 생겨났다. 예컨대, 캄보디아 씨엠립 A마을의 경우, 여행객들이 버리고 간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팔아 생활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론 남겨지는 쓰레기를 치울 수 없어 악취가 나는 문제를 해결해주길 원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해결방식은 쓰레기차를 부를 돈을 지원받는 것이었다. 한편 씨엠립의 환경청 책임자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쓰레기 문제인식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길 원했다. 여기서 센터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보편적 다수의 현지인들에게 필요한 ‘모두를 위한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기회확대와 양질의 교육제공의 측면이다. 센터는 지역기반 활동보다는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구축 사업에 강점이 있다. 때문에 아시아 환경교육운동에 있어서 마을이나 지역중심의 접근보다 기반구축차원의 접근 - 예컨대 교육부(청) 혹은 환경부(청)와의 협력을 통한 교육정책 개발, 교육과정 개발이나 넓은 범주의 환경콘텐츠 개발(대중도서, 교과서), 교사연수, 지역리더 양성 - 이 보다 적합하겠다는 내부적 평가를 하면서, 시간을 갖고 조금 더 공동의 학습과정을 거치기로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라오스의 실험은 아직 진행 중이다. 현재 보급되고 있는 교재가 현지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좋은 방법인지에 대한 교육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조심스럽게 기다리는 중이다. 좋은 여행인지 아닌지는 여행이 끝나본 뒤 그곳의 주민들의 삶에 어떤 여행을 미쳤는지 보아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그럼에도 현 시점에서 몇 가지 가능성과 과제를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정책개발이나 교육과정 개발, 인프라 구축과 같은 체계적인 접근도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보급형 비형식교재나 대중도서로서의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교육콘텐츠의 내용도 있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교육전문성 역량강화 지원이 꼭 필요하다는 점, 현지인을 직접 교육하는 것보다는 지역리더를 교육하고 그들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점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한편, 콘텐츠 개발에서 지역특수성 이외의 연령과 교육수준 특수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 한편의 책을 여러 연령대가 함께 돌려볼 수 있다는 점, 소수민족의 거주환경특성에 따라 시급한 이슈가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 아시아협력활동을 통해 "local to local" 접근방식이 아닐 경우,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와 새로운 가능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3. 모두를 위한 아시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하여

앞으로 환경교육센터가 하려는 “모두를 위한 아시아 환경교육/지속가능발전교육”은 무엇일까? 센터는 활동 16년차를 맞았고, 이 시기에 즈음하여 “모두를 위한 환경교육(Environmental Education For All: 이하 EEFA)”을 기치로 교육의제를 설정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교육에 무게중심을 둔 활동방향을 선언했다. EEFA는 센터가 추구해 온 생명, 평화, 참여, 나눔의 가치에 더해, 공감과 배려, 정의와 공평, 책임의 가치를 보다 강조한다. 공감과 배려의 대상은 자연과 인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포함하되, 특히 아시아의 교육 소외 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들과 폭넓게 공감

하고 배려하는 교육활동을 강조한다. 아시아 EEFA 차원의 센터 역할로는 교육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 이를 위해 크게 환경과 지속가능발전교육 차원의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개발 지원, 현지형 콘텐츠 개발과 보급, 교사교육과 지역리더양성, 녹색ODA의 교육적 접근 융합, 총체적 접근으로서의 환경교육ODA 전략개발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경교육센터가 그간의 경험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도 나누었다. 그간의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질문이 생겼지만, 성과나 성공여부를 떠나 경험 자체가 중요한 학습과정이기도 했다. 아시아 협력활동은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다기보다 무엇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흥미로운 일이다.

참고문헌

강민경, 2013, 국제개발협력과 환경, KOICA

김갑성, 2012,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국제교육개발협력 방안: 중등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0권 4호, 269~292

이태주, 2015, “왜 가난한 나라의 자립을 도와야 하는가?”, *모두를 위한 국제이해교육*, 한국국제이해교육학회, 183~198.

조현아, 2009, “한국의 교육ODA사업으로서 ‘라오스 중등학교 교과서 보급사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환경교육센터, 2013, 캄보디아 지역조사 보고서(KOICA 민간단체사업발굴지원사업 제출용)

환경교육센터, 2014, 라오스 출장보고서

환경교육센터, 2014, 한국의 환경교육운동사, 이담박스